투데이 칼럼

중도주의자의 자세

곽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자신은 좌도 우도 아닌 중도라는 분들이 편을 갈라 진영 싸움하는 모습이 싫다고 말씀하신다. 좌우 이념대결이 사회를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고로 좌우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꾸짖는다. 이해 안 되는 바 아니다. 사실 싸우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지만 그건 중도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정치에 대한 낮은 이해에서 나온 정치무관심이나 정치혐오의 일환이다.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서로 다른 정치적 생각으로 대립해 왔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인류사의 필연적 현상이다. 그 서로 다른 생각의 대립이 현재의 인류를 만든 것이다.

오히려 인류사는 인간의 다양한 자유의지를 통제하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그와 다른 정치 집단을 늘 통제해 왔다. 그 통제의 이유는 앞서서 말한 소위 중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회 안정이다.

그 통제는 때론 무차별적 혐오로 이어져 참혹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인간 사이에 상하구조를 만들었고 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비인간적 수단이 총동원했다. 인류사는 그 통제를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안정은 권력자와 그 정치세력의 가장 달콤한 유혹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정이란 명목을 내세워 만든 국가가 바로 사회주의와 독재국가들이었다. 그 사회는 정말 안정되었는가? 아니다. 자유의지의 인간은 그 통제된 사회 속에서 절대 견뎌내지 못한다. 끝내 무너진다.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면 언젠가 무너진다.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보자. 이미 너무도 익숙해진 자유를 통제하려하니 대부분의 시민이 강한 저항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다. 군사독재시절보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 우리는 더욱 자유를 갈망했다. 이미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시위에 평범한 시민 다수가 적극 참여한 이유다.

두달 넘게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토요일은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오늘은 광화문에서 이에 반대되는 세력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런 대립된 모습이 보기 싫은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혐오다.

나는 스스로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노력해도 이미 민주진보진영의 색안경이 어느 정도 씌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정치적 대립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무엇이 나의 정치적 이해에 더 맞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그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도주의자의 자세다. 나는 이를 실용주의적 노선이라고도 생각한다. 내가 늘 다가가고 싶어하는 노선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시스템이 아니다. 최악을 막는 시스템이다. 통제된 사회보다는 비록 일사불란하지 않고 조금은 덜 안정된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사회는 다수가 서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인정해주며 공정한 조건하에서 서로 경쟁하며 자유롭게 상호 통제와 견제를 하므로써 비록 더디고 조금은 혼란스럽더라도 건강하게 사회가 발전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 중도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혹시 나의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든다면 그에 맞는 실천도 해봤으면 좋겠다.

독자제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최근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사망사고는 아직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39.7%로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수치이다.

최근 3년간 16년 389명, 17년 374명, 18년 344명으로 연평균 369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1명만 보행자에게 양보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면 무조건 멈추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큰 문제이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에 부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공익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길 바란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내 가족, 이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다음 통행하여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김민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홍콩 시위사태 촉발 살인사건 용의자 출소

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한 살인사건 용의자인 찬퉁카이(陳同佳)가 23일 출소한 이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전체 홍콩인들에게 사과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 설

젊은 여성들도 전북을 떠나고 있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게 고민이 되고 있는 중에 젊은 여성들도 떠나고 있다. 그같은 소식은 저번에 전북연구원의 이슈 브리핑에서 알려졌던 바이다. 인구 동향과 관련해서 전북도가 긴장 모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때라는 지적이다. 도지사가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워라밸 정책을 위해 직원 목소리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성과도 어떤지 궁금하다.

도내 인구 유출 대다수는 청년들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겉보기일 뿐이었다. 스무살에서 스물네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의 유출보다도 더하다는 보고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전북의 인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겠다. 그리고 전북도는 이 어려운 때에 도내 젊은이들에게 진짜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결혼과 출산 쪽에 맞는 정책을 펴려면 우선 도내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눌러 살게 해야만 한다.그런데 젊은이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일자리가 부족해 불만이 가득하다. 전북도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일자리 창출이 적으니 왜 아니 그러겠는가.

전북도는 힘을 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전력투구해야 한다. 일거리가 산더미라 지칠 때도 있으리라는 짐작이지만 그래도 힘내야 한다. 그리고 다급한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북도는 미래 비전을 말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저번에도 여러 번 당부했거니와 전북도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금처럼 내일도 곤란한 일이 계속될 터이다.

도민의 바람과는 반비례하여 젊은 청춘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으니 난감하다. 전북도가 젊은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도지사가 언급했던 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에 신경을 쓰는 그 이상으로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중요한 문제가 잘 안풀린다면 젊은 여성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여성 인구의 유출을 두고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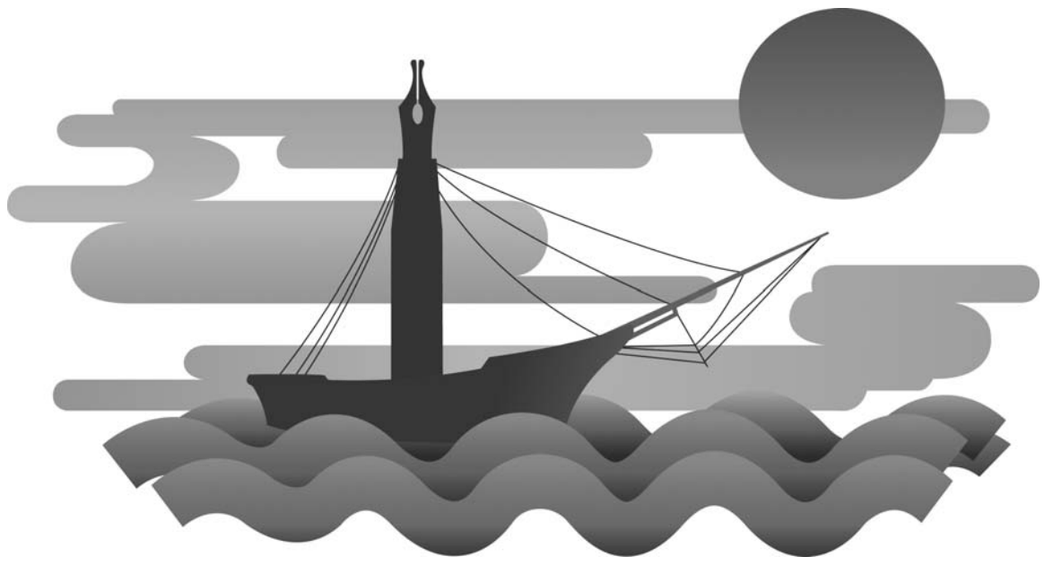
전북 발전은 증액된 예산 확보가 답

전북 발전은 예산 증액 확보가 답이다. 여러가지 해법이 있을 테지만 역시나 최고의 해법은 증액된 예산 확보이다. 무슨 일이고 돈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아무리 뜻이 높고 열망이 뜨겁다 해도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에 보통 이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예전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한 움직임을 보여줘야한다는 주문이다.

여기 다시 강조하거니와 예산 증액 확보는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국회예결위가 전국을 순회하며 각 지자체와 예산 문제를 논의하려는 지금 전북도는 예산 증액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차례 말한 바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나서서 이쪽의 관심사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도내 여러 기관들과 정보 교류를 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보도를 보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아직도 엇박자 행보라는데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이며 새만금 순환링 도로 등 내부 개발 사업 등의 그 핵심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좀 더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덕거리고 있는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줘야겠다.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도민에게 여러 차례 그 성취를 자신한 것들이다.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일이 안 풀렸다는 식의 변명의 말을 들려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이대로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청사진대로라면 진작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답답함을 안기고 있는 세월이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점잖은 대처는 마뜩치 않다. 전북 발전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성공 가도를 달려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에 예산 증액 논리를 정밀하게 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 국회예결위 관계자들을 설득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